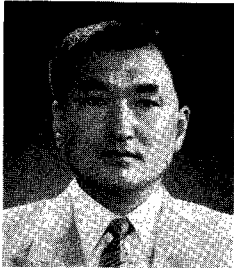


육계인, 구조변화 의 재인식 필요



강 용 식
본회 천안육계분회장

정 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육계인 여러분들은 금년 한해가 어떻게 움직여질까 자못 궁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도 병자년의 길었던 불황이 육계업자들에게 가했던 고통은 이루말할 수가 없다. 근자에 없던 불황으로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격과 같은 육계인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여 보기 위해 시설자동화도 하고, 생산자들이 계열화사업이라는 것도 하였지만 결과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 뿐이다.

이 같은 현실이 온 것에 대해 육계인 모두는 냉철한 분석을 하여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육계업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구입, 입추만 하던 때에는 생산량의 증감 추이가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중 호황과 불황이 자주 교차하였으나 현재는 농장 단위의 대형화, 병아리공급의 일원화(유통 및 소개소), 계열주체의 생산능력 등이 있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4년 여름 무더위 피해 이후 육계인들은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2년을 지나면서 육용종계가 평년수준 이상으로 입식이 되었음에도 쉽게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부화된 병아리는 전량 입추라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입추열기가 곧 생산량을 늘려 과잉의 소지가 되었다.

육계값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을 보일 때에도 육계인들은 병아리를 고가에 구입하여 입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육계업의 불황은 그만큼 길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여기에 병아리가 부족하여 닭고기 값이 뛰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반년 동안에 수입이 되어도 많은 양의 종란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할당관세를 적용시켜 수입케 하는 바람에 불황은 소비감소의 요인도 있었으나 결국 국 생산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

과거에는 생산 기반이 순수한 육계농장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면 입식 자체 운동이라도 한다면 적은 폭이나마 생산조절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계약 사육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일반사육농가만의 힘으로는 생산조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육계값이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입추 열기가 장기간 고조된 것은 2년여간 병아리가 부족하자 계열주체들이 종계확보를 상당히 한 것으로 보여 일정량씩 계열주체로 입식이 되고 병아리가 일반 분양 쪽으로 돌아섰고, 계열주체의 병아리마저 일반 농가에 판매를 하는 정도로 병아리 수급사정에 변화가 왔지만 육계인들은 이 같은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병아리를 입식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 입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지난 해의 경우 5~6월부터 생산과잉의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북까지 육계시세가 비교적 안정을 보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국내의 상황은 5월부터 냉동 비축이 시작되었고, 수입품도 9,800톤이 수입되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연일 소비를 위축시키는 언론보도와 국내 경기의 침체가 결국은 육계업을 힘없게 무너뜨리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금년에는 지난 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먼저 생산 동향에 있어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비동향을 보아가며 입추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육계업은 시설투자 등으로 생산여력이 소비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만



국내의 상황은 5월부터
냉동 비축이 시작되었고
수입품도 9,800톤이 수입되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연일 소비를
위축시키는 언론보도와 국내
경기의 침체가 결국은 육계업을
힘없게 무너뜨리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번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요행은 있을 수 없고 누가 생산비를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라고 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계약사육을 하건, 아니면 일반사육을 하건 간에 일정한 마진을 놓고 생산비를 누가 최대한 낮추느냐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계업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다. 금년 7월이면 전면 수입이 개방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생각으로 육계업을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어렵긴 하지만 금년 정축년은 육계업의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무리한 입식, 출하가의 요행을 버리고 적정 입식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양계**